

국립공공의료대 조기 개교 추진

이환주 남원시장 민선 7기 시정 방향 무상교복·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등

이환주 남원시장은 2일 시청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민선 7기 시장업무에 들어갔다.

취임식 후 이 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남원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민선 7기 남원시장으로 선택해 주신 시민들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남원만들기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시장은 "우선 선거기간 동안 있었던 정치권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국립공공의료대학 조기개교, 지리산 친환경전기열차사업과 문화관광, 주민복지, 일자리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자랑스러운 남원시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시는 민선 7기 비전으로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정하고 10년, 20년 후의 남원을 완성해 나가는 중장기적인 시정방향을 수립했다.

이환주 시장의 민선 7기 청사진을 살펴보면 첫째, 국립공공의료대학의 2022년 이전 개교를 추진하고, 품격있게 육성하는 문화관광 활성화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과 원도심권 활성화, 편리한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시행 및 친환경 전기열차를 도입하여 지리산권 힐링 관광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금암공원에 전망대와 스카이워크를 개발해 관광객이 머물고 둘러볼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는 등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히스토리로드 관광컨텐츠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며, 노안제3농공단지와 사계 일반산업단지를 조기 완성해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고, 화장품산업클러스터 산업을 미래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편리하고 건강하고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교육복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복지인프라를 확대하고, 계층별 시



민들의 필요시설 구축, 생활체육 확대, 무상교복·무상급식 제공 등 청소년들이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꾸리 산업 육성, 남원참미 브랜드화, 전략작목 생산단지 확대, 농·식품 6차 산업, 귀농귀촌 활성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등 주민소득사업으로 돈 버는 농촌을 만들고, 최첨단 ICT활용 가축방역 인프라 구축, 농촌인력 지원사업단 운영 등 영농여러움을 해소하고 영농환경 개선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스마트한 농업경영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6년은 새로운 남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준비단계였다면 민선 7기는 남원의 큰 그림을 완성하고 한 단계 도약된 남원을 만드는 시기라며, 가시적인 성과로 남원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환경부 보다 앞선 클린순창 운동 '눈길'

정부, 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침' 시행 군, 2013년부터 추진 집중 조명... 쓰레기 감량 큰 효과

정부가 '공공부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순창군의 클린순창운동이 미래를 내다본 정책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은 크게 5가지로 ▲ 사무실에서 일회용 컵과 페트병 사용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하기 ▲ 각종회의 행사 시 페트병 물병 대신 식수대를 설치하고 개인컵 사용하기 ▲ 일회용 우산비닐커버 금지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근 지침이 발표되면서 지난 2012년부터 순창군이 추진해온 클린순창운동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클린순창운동은 황숙주 군수 취임 후 추진한 농촌 환경정화 운동으로 농촌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복원해 청정지역을 만들고 군민들의 의식까지 개혁하는 취지로 시작됐다.

핵심은 CS(Clean Sunchang)5대 실천

운동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회용품 사용 안하기 ▲폐비닐 수거체계 확립이 주 내용이다. 군은 클린순창 운동의 성과를 위해 지역에 있던 불법소각장을 근절하고 분리수거함을 집중 보급했다.

또 음식물 탈수기 등 정비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공서가 앞장섰다.

순창군청에서는 1회용 컵을 쓰지 않고 있으며 면민회나 축제에서도 1회용 컵대신 컵을 세척해 사용한다. 컵을 씻는 번거로움 때문에 처음에 불편을 호소했던 직원들도 이제는 개인 머그컵 사용에 익숙하다.

폐비닐 수거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민관합동 수거작업이 진행됐다.

2016년에는 폐비닐 457톤, 폐농약병 14만 7000병을 수거하는 실적도 올렸다. 또 마을에는 폐비닐 집하장을 별

도 설치해 농촌에 안전한 폐비닐을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순창군의 쓰레기 반입량은 크게 줄었다. 2014년에는 전년도 대비 500톤이 줄었고 지난해에는 26톤이 감소했다. 꾸준히 증가하던 음식물 쓰레기도 줄고 있다.

지난해 실제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1,382톤에서 1,367톤으로 15톤 줄었으나 수거지역이 확대된 결과로 실제 감량은 78.6톤으로 군 측은 추정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성과는 민관이 하나가 돼 일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실제 클린순창 운동에는 46개의 민간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공원, 하천 등 환경정화활동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군 관계자는 "클린순창 운동은 지역을 깨끗하게 할뿐 아니라 순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순창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은 전라북도가 공모한 2018년 겨울철 관광상품 운영 지원사업에 '임실 산타축제'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겨울철 관광상품 공모 선정

민선 7기 임실군, 2년 연속 선정 영예 '2018 산타축제' 임실치즈테마파크서 개최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임실군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

임실군은 전라북도가 공모한 2018년 겨울철 관광상품 운영 지원사업에 '임실 산타축제'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가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 콘텐츠를 확대 운영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임실군은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군은 '2018 임실 산타축제'로 총 사업비 1억원(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올 겨울에도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들은 산타축제를 즐길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됐다.

산타축제는 사연을 접수받아 18명의 산타를 찾아 선물을 주는

'18명의 산타를 찾아라', 노래와 춤으로 끼를 발산하는 '산타 경영대회', '열광마칭밴드 공연', '각테일 공연', '미술공연', '산타양말 소원적고 선물받기', '잔디셀매타기', '각종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선사한다.

임실군은 지난해 아쉬웠던 것, 부족했던 것을 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 풍성하고 재미난 행사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산타축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무척 기쁘고,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옥정호, 성수산, 사산대, 오수의견공원 등을 연계하여 임실하면 관광, 관광하면 임실이 떠오르도록 관광객 500만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지역 매아리

제8대 남원시의회 의장단 선출

제8대 남원시의회는 당초 3일 오후 가질 예정이던 개원식을 태풍과 장마 등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취소하고, 오전 10시 제223회 임시회를 개최해 의장단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선출한 전반기 의장에는 윤지홍 의원(3선), 부의장에 양해석 의원(3선)을 선출하였으며, 의장으로 양해석 의원(3선)을 선출하였으며, 의장으로 선출된 윤지홍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소중한 뜻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8대 의회 임기 동안 시민 여러분과 소통, 화합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장은 "남원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의회의 모든 업무와 의정활동을 시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남원시의회 임시회는 3일부터 6일까지이며, 오는 6일 2차 본 회의를 갖고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번 선출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은 2020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커피지도사 자격증반 교육

순창군이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하는 커피지도사 자격증반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번 커피지도사자격증반 교육은 군이 지역생활특화자원을 활용한 창업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MICE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군은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2일까지 홈페이지와 SNS(페이스북) 홍보를 통해 교육대상자를 선정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2번째 실시하는 교육으로, 작년과 같이 총 25명 정원에 40여명이 몰려 큰 인기를 실감했다.

이번 교육은 건강장수연구소 식문화실습관에서 진행되며 지난달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2시간씩 진행된다. 총 15강이 진행될 계획이다.

지난 6월 28일 진행된 첫 강의에서는 원산지별 특징, 분류 원두구입 보관요령 등의 교육이 진행됐다. 군은 앞으로 에스프레소 등 각 커피의 특징과 향분류, 추출기법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실질적으로 창업과 취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안숙선 명창과 함께하는 문화버스 운영

남원문화도시 사무국에서는 지난 6월 30일 관소리를 주제로 남원을 대표하는 중요무형문화재인 안숙선 명창(가야금산조, 병창보유자)과 함께하는 '문화버스 구석구석'을 운영했다.

문화버스 구석구석은 매년 남원의 문화자원을 소개하고 다양한 체험과 탐방을 하는 남원문화도시에서 주관하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2018년에는 남원의 문화인물(김병중화백, 안숙선 명창, 복효근시인, 류명철명인)과 함께하는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다.

프로그램에서는 남원 국악예술고 학생들의 국악공연과 안숙선명창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토크인터뷰, 관소리 배우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졌다. 남원문화버스 구석구석은 오는 7일 복효근 시인과 함께하는 시(詩)이야기와 14일 류명철 명인과 함께하는 남원농악탐방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남원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신청은 남원문화도시사무국(063-365-0107)으로 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